

[ACTS 29 농어촌교회현장]

기독교화를 꽃피워야 한다, 제주도

2004 / 페이지 수: 2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제주도 연간 491만 3천명의 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섬나라. 돌, 바람, 여자가 많다 하여 '삼다도'라 불리는 곳.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용불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전국에서 인천에 이어 이혼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 43사건 등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 이곳이 제주도다.

마음 열고 있는 제주

제주도에 최초로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은 이기풍 선교사다. 대부흥운동이 절정에 달해있던 1907년 9월. 장로교회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전 한반도를 묶은 독립노회인 '독노회'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일곱 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고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기풍 선교사가 파송되었을 당시 제주도는 '탐라국'이라고 불리며 언어와 문화가 육지와는 다른 선교지였다. 1908년부터 1917년까지 이기풍 선교사는 성안교회를 비롯해 금성, 삼양, 성읍, 조촌, 모슬포, 한림, 용수, 세화 등의 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제주도의 교인은 410명, 예배당 3개, 기도회처소가 5곳 매주 모이는 남녀가 300여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에 남아있다.

이렇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제주도의 척박한 땅에서 꾸준히 자라왔다. 그러다 1948년 4.3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제주도민들에게 씻기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제주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제주교회는 제주도 내에서 기독교가 꾸준히 영향력을 키우길 바라고 있다. 서귀포반석교회 허봉식 목사는 "제주에는 기독교 이름을 지은 병원, 학교 등 사회시설이 없다"면서 기독교가 힘을 모아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름다운교회 이종한 목사는 교회가 힘을 모아 연합집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목사가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 제주도는 성탄절이 되도 캐럴송이 울리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없는 삭막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매년 '성탄선포축제'가 열리고 있고, 지난 부활절부터는 교회가 연합해서 부활절선포축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높은 이혼율로 깨어진 가정을 위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제주도민이 겪는 상처와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노력의 결과다.

최근에는 제주영락교회 등 제주시내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연합기도운동을 벌여 제주 교회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참된 친구가 필요한 제주

둘째, 온누리위성방송은 제주도교회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목회자들이 재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온누리위성TV는 목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3년 된 월령교회를 7년째 섬기는 김영란 전도사는 “저희교회 성도는 성인 10명, 주일학생 30명, 중고등부 5명이 전부입니다. 작은 교회여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예배, 세미나 등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위성TV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고 말한다. 덧붙여 제주도민들은 거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방송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서 프로그램 편성을 해달라고 말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는 제주도가 ‘국제복음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문화와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2003년 12월 말 현재 55만 명의 도민 중 38만 여명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몰려있다는 점에 착안해 도시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와 도민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8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한 이종한 목사는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육지 사람들을 꺼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오랜 시간동안 무속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삶이 무속이고 무속이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고 있고, 전체 기독교인이 8.5%정도 되는데 청년들은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전통, 풍습, 문화 속에서 육지 사람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말씀을 선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목사는 신세대에게는 문화로, 기성세대에는 관계로 다가가 친구가 되어줌으로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다. 아름다운교회는 내년 초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더 큰 비전을 이루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운 부흥 준비하는 제주

월령교회의 김영란 전도사는 “육지에서 이곳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지만 이곳 아이들을 육지로 초대해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곳 아이들의 꿈입니다.” 라고 말한다. 김전도사는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에 있는 기성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

1908년에 이기풍 선교사가 처음 제주도 땅을 밟았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은 1907년에 전국을 휩쓴 영적대각성운동이 제주도에 일어난 것이었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인지 100년, 제주도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돕는 일은 분명 온누리교회의 몫이라 믿는다.

* 출처 : 온누리신문